

PUBLICATION

한국소설의 새로운 부흥기는 오지 않는가

권태현 | 출판평론가

한국소설이 봄을 조성하려면, 우선 작가들이 뛰어난 작품을 써야 한다.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뛰어난 소설을 쓸 수만 있다면 그 작가는 얼마든지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는 탁월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많은 작가의 많은 작품이 출간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좋은 작품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눈길 끄는 신간들

최근 들어 한국소설이 앞다투어 출간되고 있다. 한동안 한국소설의 출간이 뜸하게 이어지다 보니, 여러 권의 소설이 한꺼번에 나오는 현상이 여간 반갑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소설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먼저 눈길을 끄는 신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꽃게무덤』(문학동네)은 이상문학상 수상작가인 권지예의 세 번째 소설집. 독특한 자기 스타일을 펼쳐 보이며 재미있게 잘 읽히는 이 소설집은 권지예가 짧은 기간 동안 중요한 작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아주 흔한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내는 날렵한 솜씨가 소설의 맛을 더해준다.

『홍터와 무늬』(랜덤하우스중앙)는 베스트셀러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저자 최영미의 첫 번째 장편 소설. 이 소설은 1960년대부터 2004년까지 정씨 일가의 가파른 삶의 궤적을 딸인 하경의 입을 통해 서술하고 있는 일종의 가족소설이다.

그리고 또 한 권의 가족소설로 『가족사진』(은행나무)이 있는데, 이 책은 양귀자·이순원·김인숙·구효서·서하진·고은주·하성란·권지예·이만교 등 한국의 주요작가들이 쓴 가족소설을 한자리에 묶은 것이다. 이 소설집에서 작가들은 한편으로는 힘들게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이 되는 가족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가족의 실체를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더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선사해 준다.

이외에도 한국문학의 독보적인 작가로 꼽히는 박상룡의 다섯 번째 소설집 『소설법』(현대문학), 실험적인 기법이 돋보이는 작가 신승철의 첫 번째 소설집 『낙서,

음화 그리고 비층』(문이당), 신동엽창작상과 대산창작 기금을 받은 전성태의 두 번째 소설집 『국경을 넘는 일』(창비) 등등 거의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출간된 책들이 적지 않다.

한국소설의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소설이 출간되는 현상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를 한국소설로는 오랜만에 베스트셀러 행진을 하고 있는 『미실』(문이당)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문이당 편집부 봉정하 편집자도 “작년에는 외국소설이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는 『미실』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소설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미실』의 판매 부수가 12만 부를 넘어섰고, 앞으로 50만 부 정도의 판매 부수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한 분야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그 분야의 책들이 덩달아 잘 팔리는 일은 출판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아침형 인간』(한스미디어)으로 인한 반응을 들 수 있다. 이 책이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라』(명진출판)와 같은 비슷한 컨셉트의 책이 출간되는 것은 물론이고, 『퇴근 후 3시간』(해바라기), 『설득의 심리학』(21세기북스), 『한국의 부자들』(위즈덤하우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21세기북스) 등이 다시 베스트셀러로 복귀하고, 경제·경영서 전체가 전반적으로 잘 팔리는 호황을 누렸던 것이다.

또 안도현의 『언어』(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 후에는 어른을 위한 동화가 붐을 이뤘고, 『파페포포 메모리즈』(홍익출판사)가 베스트셀러가 되자 카툰집이 앞다투어 발간되어 서점의 한 코너를 장식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정운의 시집 『홀로서기』(청하)가 공전



권지연의 『꽃게무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박상룡의 『소설법』

의 히트를 기록하자 도중환의 『접시꽃 당신』(실천문학사)을 비롯해서 이해인, 이정하 등의 시집이 많이 읽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국소설의 새 흐름 조성할 만한 작품은?

그렇다면 『미실』 이후에 나타난 한국소설의 반응도 앞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현상인가. 그러나 이 점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들이 많다. 흔히 말하는 연쇄 반응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미실』의 뒤를 이어 공지영 장편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푸른숲)이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푸른숲 김현정 편집장에 따르면, “한달 만에 7만 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유지하면 20만 부 정도는 무난히 나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이런 반응이라면 한국소설의 새로운 붐이 조성될 좋은 조짐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꽃게무덤』은 초판 1만 부를 찍은 상태이고, 『홍터와 무늬』는 초판과 재판을 합쳐서 7천 부를 찍었다고 한다. 또 『가족사진』은 함께 참여한 작가들이 널리 알려진 작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조

심스럽게 초판 4천 부를 찍은 상태다. 그 외의 작품집은 초판이 3천 부를 넘지 않는다.

새로 나온 이 소설들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서점 매장에서 책의 판매를 체크해 온 담당자들은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책이 출간되고 나서 단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면 최근 발간된 책들이 한국소설의 붐을 조성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책이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 뒤이어 나오는 한국소설들이 독자들의 큰 관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한국소설을 펴내는 몇몇 출판사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판매 면에서 폭발성을 지닌 이른바 '물건'이라고 할 만한 소설을 준비하는 곳은 없었다. 문학동네에서는 박민규 소설집을 준비하고 있고, 창비는 김연수·김종은·김인숙 소설집을, 문이당에서는 권채운 소설집과 은미희·이나미 장편소설을, 문학과지성사에서는 김경욱 소설집을, 현대문학에서는 이신조·김이은 소설집과 정미경 장편소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책들 역시 6월과 7월에 걸쳐 쏟아져 나오겠지만 판매 면에서 새롭게 큰 흐름을 조성할 만한 소설은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각 출판사 담당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을 깨고 획기적인 소설이 나와주지 않는 한 한국소설의 새로운 부흥기는 도래하지 않고, 애써 지켰던 한국소설의 불씨는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꺼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불편한 소설

그렇다면 한국소설의 불씨가 불꽃으로 더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점에 대해 문학동네 조연주 편집자는 한마디로 “새로운 소설이 나와야 한다”고 단

언한다. 그런데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은 천병관의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롭고도 놀라운 소설 『고래』(문학동네)가 그 요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1만 5천 부를 찍는 데 그쳤다고 하니, 새로운 것만으로는 독자들을 크게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한국의 문학평론가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듣고 온 말을 인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평론가는 프랑스의 한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한국 작가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좋은 작가들을 소개하겠다고 했더니 조건을 붙이더라는 것이다. “새로운 것, 흥미진진할 것, 독자를 불편하게 할 것”. 이 말을 들은 문학평론가는 선뜻 소개할 작가를 떠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한국소설이 붐을 조성하려면, 우선 작가들이 뛰어난 작품을 써야 한다. 새롭고, 흥미진진하고,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뛰어난 소설을 쓸 수만 있다면 그 작가는 얼마든지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는 탁월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여러 출판사에서 소설집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문예진흥원의 지원금 때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많은 작가의 많은 작품이 출간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좋은 작품이 발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읽어주는 것이다. 사실 아주 적은 부수만 팔리고 만 소설 가운데는 가까운 작품들이 꽤 있다. 이들 작품들이 외면당하지 않고 계속 읽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작가들은 더 힘을 내서 좋은 작품을 쓰는 데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두루 갖춰질 때, 지금은 비록 여건이 덜 조성되어 있지만, 한국소설은 새로운 부흥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